

## 예비특수교사의 교육실습 운영 실태 분석 및 인식 조사

김 호 연\*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박 경 옥

한국우진학교

이 태 수

한국고용촉진공단

유 재 연

나사렛대학교

---

### 《요 약》

---

이 연구는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특수교사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실습을 위하여 대학의 준비도와 실습학교에서의 교육실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전국의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에서 교육 실습을 마친 176명의 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육실습이 특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급 등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학의 준비도와 실습학교에서의 실습관련 연수와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실습과정 중에는 장애학생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하여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수방법 구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IEP 목표설정에서도 어렵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예비 특수교사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실습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실습학교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적 교육실습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특수교육, 교육실습, 예비교사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양질의 교사 양성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높은 공헌을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

\* 교신저자(hykim@kangnam.ac.kr)

교사 양성 과정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능력에 염려가 될 만한 차이가 있는 것은 누구나도 공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다양한 형태의 실습의 부족으로 인해 초임교사들은 고충을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특수교육은 교사용 지침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기 보다는 다양한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론은 물론 실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교육 교사들과는 달리,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실습을 받지만 교원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되는 특수교사 중에는 소수만이 특수학교로 배치될 뿐 대부분의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배치되며, 최근 들어서는 재택·순회 교사 및 병원 학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고로 교육 실습에 대한 문제점이 특수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통계에 의하면, 특수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현재, 38개 대학에서 1812명의 특수교육 관련 예비 교사를 양성 중에 있으며, 3개의 특수교육대학원과 34개 교육대학원에도 특수교육 관련 전공 예비 특수 교사를 양성 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특수교육 관련 졸업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실습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석되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 능력에 부합한 교육 실습 운영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고 본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호, 2001. 1. 31)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2학점에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실습은 교직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자신의 교육자적 능력과 교직에 대한 적성여부를 최종 점검해 보는 과정이다. 또한 학교현장의 실제적 분위기 속에서 적응하여 교사로서의 직업적이고 인간적인 품성의 이해와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점검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관찰·평가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즉, 교육실습은 대학에서의 교사교육과정으로,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준비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남정걸, 1996) 할 수 있다. 특수교육분야도 예비특수교사들에게 4주 동안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수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기능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실습을 담당할 특수학교의 증가 속도에 비하여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예비교사 배출 속도가 너무 빨라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실습학교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특수교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비 특수교사들에게 효과적인 현장체험으로 교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실습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습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한국우진학교, 2005)'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교육 실습 평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실습의 중요성에 비해 실습생들에게 체계적인 실습지도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 교육현장에서는 참관 실습이나 관찰 실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교사 보조원이나 과거의 도제 제도에서와 같이 숙련자 밑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남정걸, 1996), 체계적인 실습 계획 없이 자격증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한다(윤기영, 배소연, 조부경, 1997).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비특수교사들은 교육 실습 후 실습학교의 지도방식과 지도내용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교육 현장에서 연구된 교육 실습 문헌들을 살펴보면, 실습 관련 문제점으로 적절한 실습 프로그램의 부족(배소연, 1999; Grossman & Williston, 1999), 실습기간 및 시기의 부적절함(유승연, 2000),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습기관과 학점의 배당(서은연, 1996), 현장의 실습 전문 교사의 부족(이유미, 1995), 획일화된 평가 방식(조미경, 이은혜, 임승렬, 1998), 유명무실한 실습 담당 기구(유연화, 2001; Caruso, 2000), 형식적인 순회지도, 빈약한 재정지원(조운주, 박은혜, 2001), 실습학교와 대학과의 연계체계 미비(김기태, 2004) 등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를 실습 준비도와 함께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실습 수행 능력 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이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모색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어 현장을 연계한 교사양성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에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아직도 문제점만을 공감하고 있을 뿐 교육 실습에 대한 실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적절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점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특수교육교사 양성 과정 내의 교육 실습에 관련한 쟁점들을 먼저 분석하고, 특수교육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습 과정과 운영 실태, 대학에서의 준비도, 실습학교의 지원 및 교육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향후 교육실습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현재 교육 실습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이와 관

런하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실습에 대해 준비도 과정 및 현장 실습학교의 운영 실태와 함께 예비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거론된 쟁점들을 토대로 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현장 교육실습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특수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문제에 논의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전반적인 교육 실습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 실습에 대한 대학의 준비도는 어떠한가?

넷째, 교육 실습 과정 중 실습학교의 지원은 어떠한가?

다섯째, 교육 실습 기간 중 수업과 실무 실습 유형 및 과정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II. 특수교육 실습의 쟁점

### 1.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 간의 차이

실습학교와 대학과의 연계체계 미비(김기태, 2004)로 인하여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 간에 요구되는 정보와 교사 능력의 차이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 장애영역에 대한 이해 및 관련한 이론 중심 교과와 교과 교육에 관련된 교과로 크게 나누어진다. 또한 각 교과 교육은 대체로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아동과 학습장애와 같은 경도 인지발달 지체를 위한 아동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장애 영역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바로 연결 가능한 교과 교육도 필요한 가운데 대학은 현재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교사 양성과정 연한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각 장애 즉,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저 출현 장애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정은 감각장애 교육의 경우 배제되거나 최소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교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수 방법의 어려움 등 이중고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업지도안 작성의 문제, IEP 개발, 다양한 진단도구를 이용한 진단과 평가 등 현장에서 분명하게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 능력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 2. 대학의 교육실습 교과 운영의 문제

첫째, 교육실습 기간의 문제이다. 일부 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학은 교육실습을 5월 중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중 현상이 심하여 실습 학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국립 학교의 경우에는 실습생의 수가 최근 급하게 증가하여 한 학급의 한 교사가 2~3인의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유승연, 2000).

둘째, 교육실습 과목을 전담으로 하고, 교육실습 학교 선정에서부터, 사전 준비 계획, 평가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주는 전담교수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대학교에서 교육실습 과목을 실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담교수를 배정하여 위에 명시한 주요 내용을 실습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극히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존의 실습 형태와 동일하게 다른 수업 없이 4주간의 교육실습으로 교육실습 교과 모두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담교수는 배정되어 있으나 학과장에 준하여 형식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유연화, 2001; 조운주·박은혜, 2001; Caruso, 2000).

## 3.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교육 실습의 비중 비교

첫째, 담당 교수 배정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실습 교과 담당 교수는 배정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운주, 박은혜, 2001). 그리고 실습학교와 교육실습생의 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과 소속 교수들이 분담하여 지도교수 형태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도교수 방문은 교장 단 감사 인사 및 연구부장과의 면담 그리고 담임교사 및 실습생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업이나 아동 지도 사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외국의 경우 실습 전담교수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대학에서 실습 세미나 과목을 지도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실습 중 모니터링이 많이 미흡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실습 형태 및 실습 시간의 부족에 관한 점이다. 4주간의 현장 실습은 참관, 아동의 현재 수준 파악, 학교 분위기 적응, 연구 수업 등을 모두 잘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특수교육과 교육실습이 실시되는 5월은 공휴일과 행사가 많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학교생활 전반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짧은 동안의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로서의 준비과정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 운영 사례를 통해 교육실습의 유형과 그 비중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실시하는 혼합교육과정의 교육실습 운영 사례>**

University of Florida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함께 하는 4+2 교육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실습은 4단계로 실시된다. 3학년 2학기 부터 실습이 시작 되는데 첫번째 실습은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이틀씩 15주간 학교를 방문하여 실습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학교에 와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일반학교 실습이며 대개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다. 실습을 하는 과목도 현장실습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교과목이 있어 매주 금요일에는 실습 전담 교수와 만나 한주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토론했고 교수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전담교수는 대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인 시간강사들로 구성되는데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소속 학교를 각각 3회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4학년 1학기 실습은 첫번째 실습에 비해 실습일이 일주일에 하루가 더 늘어 주 3회씩 학교에 나가 교육실습을 받도록 배정되어 있다. 교육 실습 학교는 첫번째와 같이 일반학교 상황이다. 그 외 시간에는 대학에 나와 나머지 수강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세번째 실습은 4학년 2학기에 실시되며 주 4회로 증가되고 Resource Room 형태의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수학급이 부족할 경우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실습 기간에는 장애 학생 지도에 주력한다. 4학년 2학기 때는 수강할 과목이 2개 있는데 한 강좌는 8월말부터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인 9월 중순까지 계절학기처럼 매일 들으면서 16주 분량의 수업을 마치게 되고, 나머지만 강좌는 실습과 연결된 '실습세미나' 과목으로서 금요일 오전에 3시간 동안 수강하게 된다. 특히 이 실습은 '협력교수' 실습이므로 다른 한 학생과 한 조가 되어 한 반에서 협력교수를 실습하도록 되어있다. 금요일 실습세미나 시간에는 다양한 협력교수 모델에 대해 학습하고 담당교수는 한 주간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해준다. 또한 세미나과목 담당교수는 한 학기에 3회 이상 방문하여 수업지도안, 수업 전략 및 다양한 이슈를 학교 방문시 논하게 된다.

최종 실습은 석사과정 중에 실시된다. 석사 4학기 중 한 학기 동안은 완전하게 실습해야 하는데 석사 2학기 혹은 3학기 차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 실습은 'full time internship' 이라고 하는데 현장 교사와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맡아서 하게 된다.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 회의 참여, 학년별 모임 참여, 학생 활동 지도 등 교사로서 필요한 역할을 거의 교사와 같이 하게 되고, 담당 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비디오를 찍고, 한 학기에 수차례 방문하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도교사와 상담하고, 학생의 수업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하여 수업을 함께 평가하고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참고가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 4. 실습 기관의 다양성 결여

특수교육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이다. 아직까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4학년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대학과 N대학에서는 3학년에 2~3주 정도의 통합학급 실습을 일반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수학교 실습만으로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가 임용되는 학교를 보면 특수학교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병원학교, 순회재택 등 그 임용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을 하지 않고 임용되는 경우에 초임교사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하게 되어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5. 실습 학교의 실습 프로그램의 불일치

교육실습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서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실습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실습 학교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실습학교에 요구하는 지침도 특별히 없으며 실습학교에서도 학교마다 교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르다. 그리고 평가 지침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조미경, 이은혜, 임승렬, 1998). 학교의 특성이나 장애 유형 및 아동들의 특성에 따라 실습 프로그램은 융통성있게 마련될 필요도 있으나 대학이 실습학교에서 요구되는 실습 관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예비 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과정들을 실습 기간 동안 익힐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쟁점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지만 그 밖에도 실습생의 증가로 인한 실습지도 교사의 부족, 예비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부족한 역량 문제,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실습 평가 문제 등 교육실습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시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4주 동안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실습을 마친 전국의 8개 특수교육(유치, 초등, 중등 포함) 전공 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과 학교 수를 고려하여 서울·경기 2개 대학, 충청 4개 대학, 호남 2개 대학, 영남 2개 대학을 군집표집하여 설문지 40부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중 영남 1개 대학과, 충청 1개 대학에서 설문 회수가 너무 지연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8개 대학교에 각각 40부 배포 즉 320부가 발송되어 그 중 188개가 회수되었다. 그 중 12개 설문지는 무응답 비중이 높아 자료 처리에서 제외되어 총 176명의 설문 결과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정보와 학교 관련 정보는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교육실습 참여 학생 및 학교관련 일반 정보(N=176)

영역	구분	빈도	%
성별	남	29	16.5
	여	147	83.5
연령	23세 이하	111	63.1
	24-29세	52	29.5
	30세 이상	13	7.4
실습대상 과정	유치부	18	10.3
	초등부	126	72.0
	중학부	16	9.1
	고등부	10	5.7
장애 영역	정신지체	110	62.5
	지체부자유	19	10.8
	청각장애	13	7.4
	시각장애	10	5.7
	정서장애	12	6.8
	기타(둘이상의 장애)	11	6.3
교육실습시기	4월	1	0.6
	5월	171	97.7
	6월	3	1.7
실습지도교사 교육경력	1-3년	18	10.3
	4-9년	68	38.9
	10년이상	85	48.6
	잘모름	4	2.3
지도교사 실습지도 경험 유무	있다	126	71.6
	없다	46	26.1
	잘모름	4	2.3

##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수교육과 교육실습의 운영에 대한 의견 조사지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교육실습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7개영역 문항의 50개의 선택형 질문과 4개 영역의 5점 척도형 28문항으로 총 78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문항번호	내용	문항 유형
1-9	설문대상의 기초정보	선택형
10	특수학교에서의 실습 적합도	선택형
11-16	교육실습에 대한 대학 준비도	선택형
17-27	실습학교의 교육실습 형태	선택형
28-32	교육실습 만족도	5점 척도형
33-40	교육실습 전에 실시된 안내나 연수	선택형
41-51	지도 교사의 실습지도 여부	선택형
52-55	교육실습 후 평가	선택형
56-64	교단수업 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5점 척도형
65-74	전체적으로 교육실습 중 힘든 점	5점 척도형
75-78	정보 미흡으로 인해 어려운 점	5점 척도형

## 3. 절차

특수교육과 교육실습의 운영에 대한 의견 조사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특수교육과 교수 2명, 현장 특수교사 1명, 박사과정생 1명이 교육 실습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교육실습을 마치고 온 특수교육과 4학년 학생 3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설문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첨·삭제의 과정을 거쳐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지는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의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 8개 대학의 320명의 학생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188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58.8%를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176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PC+(ver 1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별로 실습생들의 일반적인 실습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항별로 기술 통계

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실습학교에 관한 질문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으로 특수학급교사로서의 수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93.8%의 교육실습생들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급에서의 교육실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배치가 다양함과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배치에 대해 대학교육 동안 경험을 하고자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실습 적합성(N=176)

내 용	빈도	%
특수학교 실습으로도 특수학급 운영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	11	6.3
특수학교 실습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실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8	50.0
특수학교 실습뿐만아니라 일반학교의 실습, 특수학급 실습도 필요하다.	77	43.8

특수학급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교육실습의 형태로 실습 지도를 받은 학생은 11.9%에 불과하였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특수학급을 경험한 학생은 60.8%, 그러한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은 27.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 실습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학생들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실습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실습 경험유무(N=176)

내 용	빈도	%
특수학급에서 요청 시 자원봉사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35	19.9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실습 경험을 하였다.	72	40.9
자원봉사의 형태가 아닌 교육실습의 형태로 실습지도를 받았다.	21	11.9
실습 경험이 없다.	48	27.3

4학년 교육실습을 특수학급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 하는 경우가 77.8%에 이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습생에게 실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22.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현재 졸업 후 많은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장래 직업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 특수학급에서의 4학년 교육실습에 대한 의견(N=176)

내 용	빈도	%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6	26.1
필요하지만 다른 학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91	40.9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1.1
실습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37	21.0

## 2. 대학에서의 준비도

교육실습을 실시하게 전 예비 특수교사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교육실습의 신청 시기는 82.0%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1%의 학생들이 4학년에 교육실습학교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4> 교육실습 신청 시기(N=176)

내 용	빈도	%
3학년 2학기 초	70	39.8
3학년 2학기 말	76	43.2
4학년 1학기	29	16.5
기타	1	0.6

교육실습학교는 대부분 본인의 희망에 의하는 것(86.4%)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희망 후 대학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13.6%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희망 학교를 지정하고 대학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하였다는 학생도 6.8%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5> 교육실습 학교 선택 방법 (N=176)

내 용	빈도	%
본인이 희망학교 선택	152	86.4
대학에서 지정	12	6.8
희망학교 지정 후 대학에서 선택	12	6.8

교육실습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 특수교사들은 실습학교와의 지리적인 요건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37.9%), 그 외에도 자원봉사를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20.0%), 교육실습의 체계를 잘 갖춘 학교이기 때문(1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세부전공과 관련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희망학교의 인원 제한으로 학교를 배정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 교육실습 학교 선택 동기(N=176)

내 용	빈도	%
집이나 학교에서의 지리적인 요건	66	37.9
자원봉사 경험학교라서	35	20.1
실습학교의 교육실습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해서	28	16.1
원하는 세부전공(예, 청각장애, 지체부자유)과 동일	22	12.6
참관이나 학교방문 후	14	8.0
희망학교의 인원 제한으로	9	5.2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교육실습 학교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 시기, 실습 학교 선택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교육인적자원부, 2006), 소수의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실습이 어려운 점과 최근 특수교육기관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실습 학교 자체적으로 실습생의 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한국우진학교, 2005), 실습지를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예비 교사 양성 대학의 과제 중의 하나이며, 현장의 실습학교에서도 수많은 예비 특수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7> 현장 실습관련 학점 및 교과목수(N=176)

이수학점(과목)	빈도	%
2-3(1과목)	52	36.5
4-6(2과목)	50	56.8
7-9(3과목)	7	4.8
10학점 이상(4과목 이상)	3	2.1

4학년 교육실습 이외에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일정기간 정기적인 교육 실습활동을 한 학생은 63.1%였고, 36.9%의 학생들은 학점 이수를 위한 교육 실습 경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육 실습의 형태는 특수학교 참관실습(44.1%), 특수학급 실습(16.1%)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학년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현장 실습 관련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이수학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표 III-7>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수학점은 2~6학점(1~2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93.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교육 실습과정

예비 특수교사들이 교육 실습을 위해 실습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각 실습학교의 실습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실습과정에서 해당학교에 교육 실습생의 수는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명이상 30명이하(8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특수교육과의 양성 대학의 수가 늘고 실습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8> 학교당 교육실습생의 수(N=176)

교육실습생 수	빈도	%
5명 이하	28	15.9
6~10명 이하	43	24.4
11~20명 이하	54	30.7
21~30명 이하	48	27.3
30명 이상	3	1.7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육실습생들에게 학교에서는 실습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9%의 학생들이 제공받았다고 답하였고 47.1%의 학생들은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표 III-9> 교육실습생들을 위한 공간 제공(N=176)

내용	빈도	%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93	52.9
별도의 공간이 없었다.	83	47.1

교육 실습을 하는 동안 수업에 필요한 교과 교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자재가 학교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7%

의 학생들이 미흡하다고 답하였고, 48.3%의 학생들은 충분하게 제공받았던 것으로 답하였다.

<표 III-10> 교재 개발을 위한 기자재 제공(N=176)

내용	빈도	%
기자재가 충분하였다.	85	48.3
기자재가 미흡하였다.	91	51.7

또한 교과 교재를 제작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2%의 학생들은 일정액수에 대해서 실습학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 부담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소요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0%, 교사와의 협의 하에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했다고 답한 학생이 1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 교과교재 개발 시 소요비용의 부담 여부(N=176)

내용	빈도	%
교사와의 협의 하에 일체를 학교에서 제공받았다.	24	13.6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했다	108	61.4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	44	25.0

이와 관련하여 교재 제작을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111명 학생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0%의 학생들이 5만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6~3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학생도 2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습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한 학생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비용 산출은 어렵지만 실습비 이외에 학생들이 실습학교에서 소용하고 있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 교재 제작 시 소요된 비용(N=111)

내용	빈도	%
5000원 ~ 1만원 미만	18	16.2
1만원 ~ 3만원 미만	40	36.0
3만원 ~ 5만원 미만	22	19.8
5만원 ~ 10만원 미만	21	18.9
10만원 ~ 30만원 미만	10	9.0

#### 4. 교육실습의 수업 및 실무실습

교육실습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 조사는 교육실습을 위해 대학 및 실습학교에서 실시된 안내나 연수, 실습학교의 지도교사 실습지도 과정에 대한 실시 여부와 교육실습 전반에 대한 어려운 점과 교단 수업 시 어려움을 느꼈던 항목, 정보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던 점들에 대해 어려움의 정도를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가. 교육실습을 위한 대학 및 실습학교에서의 안내와 연수

교육실습이 실시되기 전 대학 및 실습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안내와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보다 실습학교에서 현장 실무에 관한 연수를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실습학교에서보다 IEP 작성방법과 교재·교구 개발 면에서 연수와 안내를 받고 교육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실습학교에서 실습학교 작성 방법, 교수·학습지도안 작성방법, 학생생활지도, 교육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교육실습평가 내용, 사례연구방법 등에 대해 대학에서 받은 연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EP 작성방법에 대한 실습학교에서는 66.5%를, 대학에서는 78.2% 학생들이 연수나 안내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재·교구 개발 면에서도 실습학교에서는 66.0%, 대학에서는 69.9%의 학생들 연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실습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대학에서의 안내나 연수를 받은 학생은 58.5%, 실습학교에서 연수를 받은 학생은 81.8%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실습학교에서 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수 받은 학생보다 23.3% 많았다. 교수·학습지도안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대학에서는 80.6%의 학생이 연수를 받았다고 답하였고, 실습학교에서는 89.0%의 학생들이 연수나 안내를 받았다고 답하여, 실습학교에서의 연수 경험이 대학보다 10.4%의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생활지도면에서는 대학에서는 65.9%, 실습학교에서는 91.4%의 학생이 연수를 받았다고 답하여 실습학교에서의 연수경험이 25.5% 더 많은 학생들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습생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대학에서는 89.3%, 실습학교에서는 98.9%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연수 경험이 대학에서보다 11.6% 더 많은 학생들이 연수와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습의 평가에 관해 대학에서 65.3%, 실습학교에서는 83.0%의 학생들이 연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에서는 51.7%를, 실습학교에서는 85.9%의 학생들이 연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습일지 작성, 교재·교구개발, 학생 생활지도, 사례연구 영역에 있어서

30%이상이 교육실습을 위해 대학과 실습학교에서 연수나 안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III-13> 교육실습과 관련한 대학 및 실습학교의 안내와 연수(N=176)

내 용		실시했다	부분적으로 실시했다	실시하지 않았다
실습일지 작성 방법	대학	73 (41.5)	30 (17.0)	73 (41.5)
	실습학교	104 (59.1)	40 (22.7)	32 (18.2)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방법	대학	108 (61.7)	33 (18.9)	34 (19.4)
	실습학교	121 (68.8)	39 (22.2)	16 (9.1)
IEP 작성 방법	대학	95 (54.6)	41 (23.6)	38 (21.9)
	실습학교	80 (45.5)	37 (21.0)	59 (33.5)
교재·교구 개발	대학	70 <b>(39.8)</b>	53 (30.1)	53 (30.1)
	실습학교	58 (33.0)	58 (33.0)	60 (34.1)
학생 생활지도 방법	대학	62 (35.2)	54 (30.7)	60 (34.1)
	실습학교	109 (61.9)	52 (29.5)	15 (8.6)
교육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대학	124 (70.5)	33 (18.8)	19 (10.7)
	실습학교	143 (81.3)	31 (17.6)	2 (1.0)
교생실습의 평가 내용	대학	72 (40.9)	43 (24.4)	61 (34.7)
	실습학교	104 (59.1)	42 (23.9)	30 (17.0)
사례연구 방법	대학	49 (27.8)	42 (23.9)	85 (48.3)
	실습학교	68 (38.6)	48 (27.3)	60 (34.1)

나. 지도교사의 교육 실습 지도

실습학교에 교육실습을 담당한 지도교사의 교육실습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4> 지도교사의 교육실습 지도(N=176)

내용	실시했다	부분적으로 실시했다	실시하지 않았다
수업지도안 작성에 관련된 지도	136 (77.3)	31 (17.6)	9 (5.1)
교수 방법에 대한 지도	130 (73.9)	38 (21.6)	8 (4.5)
교재·교구 개발 지도	72 (40.9)	69 (39.2)	35 (19.9)
사례 연구 방법 지도	66 (37.5)	56 (31.8)	54 (30.7)
학생 생활 지도	121 (68.8)	48 (27.3)	7 (3.9)
교과목의 이해를 위한 지도	73 (41.5)	62 (35.2)	41 (23.4)
IEP 관련 지도	59 (33.5)	54 (30.7)	63 (35.8)
문제행동 관리 요령	107 (60.8)	52 (29.5)	17 (9.6)
학생상담 · 부모상담	43 (24.4)	65 (36.9)	68 (38.7)
진단평가 지도	37 (21.0)	49 (27.8)	90 (51.2)
교수매체 활용지도	76 (43.2)	65 (36.9)	35 (19.9)

먼저 교육실습 기간동안 현장에서 지도 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지도 영역은 실제 수업 상황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수업 지도안 작성(96.0%), 교수 방법에 대한 지도(96.0%), 교재·교구 개발(80.6%), 학생 생활지도(96.6%), 문제행동관리(91.4%), 교수 매체 활용(81.0%) 등에 대한 연수는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연구방법(30.7%), 교과목의 이해를 위한 지도(23.4%), IEP 관련지도(35.8%), 학생 상담 및 부모 상담(38.7%), 진단 평가 영역(51.2%)에 있어서 연수나 안내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인 진단 평가 영역에 있어 연수나 안내가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은 특수 교육의 기반과 관련되므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요소로 볼 수 있다.

**다. 교단수업 시 힘들었던 점**

교육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어려움으로 느낀 영역에 대해 <표 III-15>와 같이 8개영역 나누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학생들은 교수목표를 설정(66.7%), 교수방법 모색(69.0%), 시간부족(56.4%), 교재·교구 개발(53.4%), 교수 평가 방법 설정(49.1%), 학생 수준 및 특성 파악(47.1%) 등에 있어 어렵다고 답하였다. 반면,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52.9%)하거나 지도 교사와의 의견을 맞추는 데(50.0%)는 큰 어려움을 없는 것으로 평

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다’를 5점으로 rating하여 평균 점수를 알아본 결과 실습생들은 교수방법 모색과 교수목표 설정을 각각 3.79점과 3.74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재 교구 개발 및 교수 평가 방법 부분도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제시되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지도교사와의 의견 일치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교단수업 시 어려운 점(N=176)

내용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문체가 되지 않는다	평균 (SD)
교수목표 설정	34 (19.3)	82 (46.6)	39 (22.2)	16 (9.1)	5 (2.8)	3.74 (.94)
교수방법 모색	31 (17.6)	89 (50.6)	44 (25.0)	7 (4.0)	5 (2.8)	3.79 (.84)
교수 평가 방법 설정	24 (13.6)	61 (34.7)	65 (37.0)	20 (11.4)	6 (3.3)	3.48 (.93)
교재 교구 개발	27 (15.3)	66 (37.5)	62 (35.2)	13 (7.4)	8 (4.5)	3.55 (.96)
학생수준 및 특성 파악	27 (15.3)	55 (31.3)	53 (30.1)	32 (18.2)	9 (5.1)	3.36 (1.08)
학생과의 라포 형성	9 (5.1)	24 (13.6)	49 (27.8)	65 (36.9)	29 (16.4)	2.56 (1.07)
지도교사와 의견 합일	10 (5.7)	28 (15.9)	49 (27.8)	68 (38.6)	21 (11.9)	2.67 (1.06)
시간 부족	36 (20.5)	61 (34.7)	43 (24.4)	29 (16.5)	7 (4.0)	3.57 (1.05)

**라. 교육실습 과정에서 힘든 점**

교육 실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 하였을 때 가장 어렵게 느낀 점에 대해 학생들은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준비과정(63.0%), 사전교육부족(45.4), 학생 수준 및 특성파악(37.0%), 실습기간(33.5%)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수업준비의 어려움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사전 교육부족이 3.42로 대학의 준비나 실습학교의 연수 등의 부족 등이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었다.

<표 III-16> 교육실습 과정에서 힘든 점(N=176)

내용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문체가 되지 않는다	평균 (SD)
사전교육의부족	28 (15.8)	52 (29.6)	68 (38.6)	17 (9.7)	11 (6.2)	3.42 (1.04)

내용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균 (SD)
실습기간	13 (7.4)	45 (25.6)	90 (51.1)	15 (8.5)	13 (7.4)	3.21 (.92)
수업준비	36 (20.5)	73 (41.5)	45 (25.6)	10 (5.7)	12 (6.8)	3.68 (1.03)
담임교사와의 관련 문제	8 (4.5)	32 (18.2)	51 (29.0)	40 (22.7)	45 (25.6)	2.56 (1.18)
학생수준 및 특성 파악	15 (8.5)	49 (27.8)	52 (29.5)	42 (23.9)	18 (10.3)	3.04 (1.18)
학생과의 라포형성	9 (5.1)	24 (13.6)	49 (27.8)	60 (34.1)	34 (19.3)	2.54 (1.10)
실무 연수	8 (4.5)	23 (13.1)	80 (45.5)	43 (24.4)	21 (12.5)	2.76 (.98)
출퇴근 시간	11 (6.3)	22 (12.5)	66 (37.5)	38 (21.6)	39 (21.5)	2.64 (1.13)
행사 준비	9 (5.1)	22 (12.5)	72 (40.9)	44 (25.0)	29 (16.5)	2.68 (1.05)
타 대학 교생들과의 관계	3 (1.7)	12 (6.8)	53 (30.1)	58 (33.0)	50 (28.4)	2.25 (1.02)
학교 분위기 익히기	5 (2.8)	16 (9.1)	53 (30.1)	63 (35.8)	39 (22.2)	2.42 (1.03)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문제(23.1%), 출퇴근 시간(19.3),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19.1%), 행사 준비(17.9%)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실습학교에 배정되어 학생들은 학생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가정부터 교수·학습을 전개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모두 4주간의 교육실습기간으로 해 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며, 사전의 준비 작업도 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실습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영역은 사례연구(3.66), IEP 작성(3.58), 교수 학습 지도안의 세안 작성(3.33), 실습일지 작성(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대학에서 현장 교육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들은 현장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여 현장 실습 과정에서 예견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I-17> 정보 미흡으로 인해 어려웠던 영역(N=176)

내용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균 (SD)
실습일지 작 성	11 (6.3)	47 (26.7)	57 (32.4)	39 (22.2)	22 (12.5)	2.95 (1.09)
세안 작성	23 (13.1)	58 (33.0)	55 (31.3)	27 (15.3)	13 (7.4)	3.33 (1.07)
IEP 작성	31 (17.6)	72 (40.9)	44 (25.0)	16 (9.1)	13 (7.4)	3.58 (1.05)
사례연구	34 (19.3)	68 (38.6)	54 (30.7)	10 (5.7)	10 (5.7)	3.66 (.97)

### 5. 교육실습에 대한 만족도

교육실습을 마친 예비 특수교사들에게 경험한 교육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실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지를 묻는 전체적인 만족도 문항은 상당히 높은 4.01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교육실습생들의 교육실습 만족도(N=176)

내용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평균 (SD)
교육실습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42 (23.9)	101 (57.4)	22 (12.5)	9 (5.1)	11 (6.2)	4.01 (.76)
참관시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44 (25.0)	64 (36.4)	42 (23.9)	21 (11.9)	5 (2.8)	3.72 (1.03)
지도교사의 실습지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5 (31.3)	75 (42.6)	26 (14.8)	11 (6.3)	9 (5.1)	3.94 (1.02)
연구수업을 위한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 및 협력에 만족하십니까?	48 (27.3)	75 (42.6)	33 (18.8)	14 (8.0)	6 (3.4)	3.86 (.99)
4주간의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1 (23.3)	83 (47.2)	30 (17.0)	15 (8.5)	7 (4.0)	3.89 (.88)

지도교사의 실습지도 시간(3.94), 참관시간(3.72),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협력 체계(3.86), 4주간의 실습 기간(3.89)에 대한 만족도 또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실습은 대학과 현장의 공적인 절차에 의한 연계교육으로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도제식 교육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실습은 매우 의미있는 과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여전히 전 영역에 15% 정도의 불만족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교육실습의 과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적인 교육 실습의 체계를 마련해

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교사 양성과정으로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실습에 대해 예비 특수교사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현장 교육실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실시되었다. 교육실습을 마친 특수교육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실습의 인식과 실태에 대한 결론과 교육실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육환경에 배치된 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실습의 형태와 실습 시기를 다양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원 봉사활동과 참관실습의 형태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활동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특수교육의 방향은 통합교육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특수학급의 증가(교육인적자원부, 2006)와 통합교육의 팽창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에서의 교육실습의 형태가 특수학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 학생의 지원, 순회방문 교육,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의 시기를 4학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년 기간 동안 적절하게 분할하여 필요할 때마가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인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상설 교육실습기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실습학교의 교육실습생이 적게는 6명, 많게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답하였고, 드물기는 하지만 한명의 지도교사가 2~3명의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례도 있다. 고등교육법 45조는 부설학교나 대용학교를 설치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현재 특수교육 교사 양성 대학에서는 소수의 학교만이 대용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전국의 특수교육과 신설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앞으로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및 대학의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습 시기의 편중과도 관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부설학교, 대용학교, 자매학교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수교사 양성 대학은 현장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 전문적인 상설 교육실습 기관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실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조직할 때,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교육과정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목적이 특수교육과정을 가장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통제할 규정이나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대학의 교육과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졸업을 앞둔 예비교사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교수방법을 선택·적용하여 만족스러운 교육 성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현장이라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실습의 과정을 통해 현장교사가 스캐폴더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때, 예비 교사들이 현장에 첫발을 들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실습과 관련하여서는 교과목 개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실습에 대한 대학과 실습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구성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실습학교의 실습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습생의 수적 확대는 실습학교를 더욱 구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실습에 대한 평가가 엄격할수록 실습학교의 경쟁력은 더욱 커져가고 이들 학교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실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많은 실습기관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습기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평가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실습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실습은 각 실습학교에 재량권을 모두 주고 있어 바람직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실습을 의뢰하면서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교수목표나 교육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실습의 방향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 마지막 주에 각 대학의 평가기준표에 준하여 실습학교 지도교사, 교육실습부장, 교감, 교장이 평가하여 보내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어 표면적인 평가의 과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실습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교육실습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습 지도교사 1인당 실습학생수를 줄이고, 사전에 교육실습에 대한 지도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교육실습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로 각 학급에 배정된 지도교사와 실습생의 개별적인 관계로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 실습지도교사의 지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개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기능과 대상과 내용의 세분화를 통해서 추구되고 있으며, 교육실습생의 교육적 경험 자체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면 지도교사의 위치는 예비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실습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인 기반을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실제적인방법을 적용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지도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에 교육실습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교육실습관련 학생들의 복지적인 측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습기간동안 실습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부족, 교재 개발을 위한 기자재 사용의 부족, 교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개인적인 부담 등은 교육실습의 과정을 거쳐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보아 이에 대한 국가적이 노력과 각 학교에서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자원 봉사활동, 참관 수업관찰, 현장학습 지원, 하계, 동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실습 등의 형태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현장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위치를 설정해 주어 그 자리에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관점이 교육실습이라는 폭넓은 부분에 맞추어져 있어 연구결과나 논의가 교육실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인식수준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정도의 실태조사는 당연히 파악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막상 연구를 시도하고자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니 아직 특수교육과 교육 실습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실태도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보니 본 연구는 그 실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실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 양성기관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편의상 군집표집의 형태로 연구대상을 설정했으므로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수를 대표하는 표집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과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다.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이시대의 “교육문화” 차원에서 성숙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임용이 되면 ‘교사가 되는 것’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는 교사 양성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되는 것’은 꾸준한 지속형 내지는 진행형의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실습이 단지 예비 교사와 대학의 몫이 아니라 실습학교와 실습지도 교사의 몫이며,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몫을 해 주었을 때 특수교육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며, 점차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특수교사의 교육실습 지도 시 대학과 현장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실습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 정기 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김기태(2004). 교육대학 교육실습제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논총, 23. 인천:경인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남정걸(1996).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배소연(1999). 유아교사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1999학년도 한국유아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000년대 한국유아교육의 발전 방향, 84-88.
- 서은경(1996). 유아교육실습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신은수(1996).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의 정규 교육 실습이 예비교사의 현장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25, 315-328.
- 유승연(2000). 유아교사 실습운영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개혁과 유아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2000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225-231.
- 유연화(2001). 유치원 교육실습 내용 및 현황 연구, 경북논총, 5. 경북대학
- 윤기영·배소연·조부경(1997). 유아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연구. 서울: 창지사.
- 이유미(1995). 교육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화·배소연·조부경(1995). 유아교육론. 서울: 양서원.
- 조미경·이은혜·임승렬(1998). 유아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된 '지식의 기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교육학 연구, 36(3), 225-254.
- 조운주, 박은혜(2001). 유아교육실습지도교사 교육프로그램 모형개발. 유아교육연구, 21(2), 273-298.
- 한국우진학교(2005). 특수교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습지도방안.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서울 : 한국우진학교 교육실습 연구위원회.
- 홍혜경(1999). 유아교사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1999학년도 한국 유아교육 학회 연차 학술대회. 2000년대 한국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 61-81.
- Caruso, J. J.(2000). Cooperating teacher and student teacher phases of development. *Young children*, 55(1). 75-81.
- Grossman, S., & Williston, J.(1999). Constructing a framework for linking course content and the learning process for teacher education students. *Childhood education*, 75(2). 102-105.

## A Survey on Practicum for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Kim, Hoyeon**

Kangnam University

**Park, Kyoung Ock**

Woonin School

**Lee, Tae Su**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Yoo, Jaeyeon**

Korea Nazaren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regarding educational practicum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o suggest the best possible trends in the future on that issue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76 senior year college students from 8 universities nationwide who have just completed their regular practicum. Overall,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their practicum is insufficient and limited. The results pointed out the preparation courses which are provided through university curriculum are not enough in terms of planning lessons and selections of educational methods and lesson goals based on their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intellectual level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ew models of comprehensive practicum programs which can be applied in our educational circumstances.

**Key words** : practicum, pre-service teachers, special education

---

논문 접수: 2007. 8. 4    심사 시작: 2007. 8. 50    게재 확정: 2007. 9. 26